

북스

어린이 책꽂이



▲꺼지지 않는 사랑의 등불-김수환 추기경= 지난해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의 일생을 다룬 인물동화다. 참의서리를 하거나 신학교 생활이 힘들어 괴를 부린 김 추기경의 어린 시절 모습,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경험하며 사회 안에서의 역할을 고민하는 김 추기경의 모습 등을 쉬운 말로 소개했다. (청어람미디어·9천원)



▲엄마, 세뱃돈 뺏기지 마세요!=살날마다 으레 집안에서 벌어지는 싸움. 엄마와 아이들 간의 '세뱃돈' 쟁탈전이다. 해마다 세뱃돈을 가져가는 엄마에 대해 불만이 많은 동철이는 올해만큼은 세뱃돈을 뺏길 수 없다고 다짐한다. 단짝 친구와 함께 엄마 몰래 세뱃돈을 빼돌리기 위한 비밀 작전을 세우는데... (시공주니어·8천500원)



▲리틀 잉=말 그대로 '작은 날개'. 아이들 마음에 담겨있는 멋진 '작은 날개'에 대한 이야기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글쓰기를 좋아하지만 쉽게 상처받는 아이 이치고와 자신의 생각을 감추고 엄마 아빠가 결정할 것을 따르는 나쓰미를 통해 자신의 마음과 날개를 지키는 법을 알려 준다. (미래아이·8천500원)



▲동생을 화나게 하는 10가지 방법=동생을 골탕먹이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담은 이야기.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귀찮고 미운 존재인 동생. 글과 그림의 내용은 반대로 구성됐다. 글은 동생을 화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림에서는 동생이 형을 화나게 한다. (어린이작가정신·8천500원)



▲야생초등학교='야생초 편지'의 저자인 황대 권씨가 경기도 하남시 이석산 자락에 '야생초 학교'를 열고 일곱 아이들과 함께 보낸 1년의 시간을 고스란히 기록했다. '바우 삼촌' 황대권씨가 아이들과 함께 씨앗을 보살피고, 야생초를 풀리기도 풀어보는 모습을 통해, 생명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 (토토북·1만원)



▲시야 노래야=공무도하가, 황조가, 구지가, 서동요..... 우리 고전시가 14수의 원문과 배경설화를 소개하고 있다. 원문은 아이들이 쉽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만화로 풀어쓰며 설화는 동화 형식으로 구성했다. 고전시가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살아온 시대의 배경, 삶, 생활, 사교방식 등을 읽을 수 있다. (정인출판사·8천500원)



▲153일의 겨울=프랑스 작가 자비에 로랑프티가 신비로운 삶을 이룬 몽골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고집스럽게 삶의 방식을 지키는 노인과 손녀가 보내는 153일의 겨울을 통해 진정한 삶의 경이로움과 행복이 무엇인지 묻는다. (청어람주니어·9천원)

▲최명란 한자 동시집 1, 2=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동시 '수박씨'의 시인 최명란씨의 한자동시집. 쉽고 짧아서 아이들이 편히 읽을 수 있고, 읊으면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무조건 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자의 음과 뜻을 시어로 담아내 동시의 맛을 전하고 숨은 한자까지 찾아보게 한다. (창비·각권 9천500원)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 떠나는 긴 여정

귀향

베른하르트 솔링크 지음



수많은 작가들이 작품의 주제로 삼았던 고향과 집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인류의 고향찾기'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오디세우스 이후 수많은 문학작품에 차용됐다.

현대에 들어서는, 더욱 많은 작가들이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삶과 대비되는 이상향으로서의 고향을 작품에 형상화했다.

그러나면 따뜻한 것으로만 여겼던 고향에 또 다른 상처가 도사리고 있다면, 영화화된 소설 '더 리더-책을 읽어주는 남자'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독일 작가 베른하르트 솔링크(66)가 2006년 발표해 최근 국내에 번역 소개된 장편소설 '귀향'에서 그 해답을 던져준다.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주인공 페터는 어린 시절 여름이면 스위스의 할아버지 집을 방문하곤 했다.

당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기쁨과 재미를 주는 소설'이라는 제목의 총서를 편집하는 일을 맡았는데, 페터는 연습장으로 쓰던 페이지에서 독일 병사 카를의 귀향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

그 이야기에서 포로수용소에서 탈출한 카를은 어렵게 고향에 돌아가는데,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내와 두 여자아이, 그리고 아내의 어깨를 감싸고 있던 한 남자였다.

결말 부분이 담긴 종이를 이미 찢어버린 탓에 결말을 알 수 없었던 카를은 성인이 된 후 한 종이꾸러미에서 우연히 카를 이야기의 앞부분을 발견하고 직접 이야기의 결말을 찾아 나서기로 한다.

소설은 전쟁 후 카를의 행적을 추적하는 페터의 여정을 통해 2차 대전 이후 독일 현대사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동시에 페터의 아버지 찾기 과정도 matters 펼쳐진다.

카를 이야기의 결말에 대한 페터의 집착은 결국 자신의 자아를 찾기 위한 페터 자신의 귀향 여정이기도 하다. 유실된 소설의 결말 부분을 금급

해 하던 페터는 카를 부부가 해후한 곳의 정경이 자기 동네와 흡사함을 발견하고 소설의 바탕이 된 실화를 찾아나선다.

소설 내용을 단서로 주인공 카를의 정체를 찾던 중 페터는 이 소설이 통속소설의 외양에도 불구하고,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그린 고전 '오디세이아'를 패러디한 고급 작품을 깨닫고 작가의 정체에도 호기심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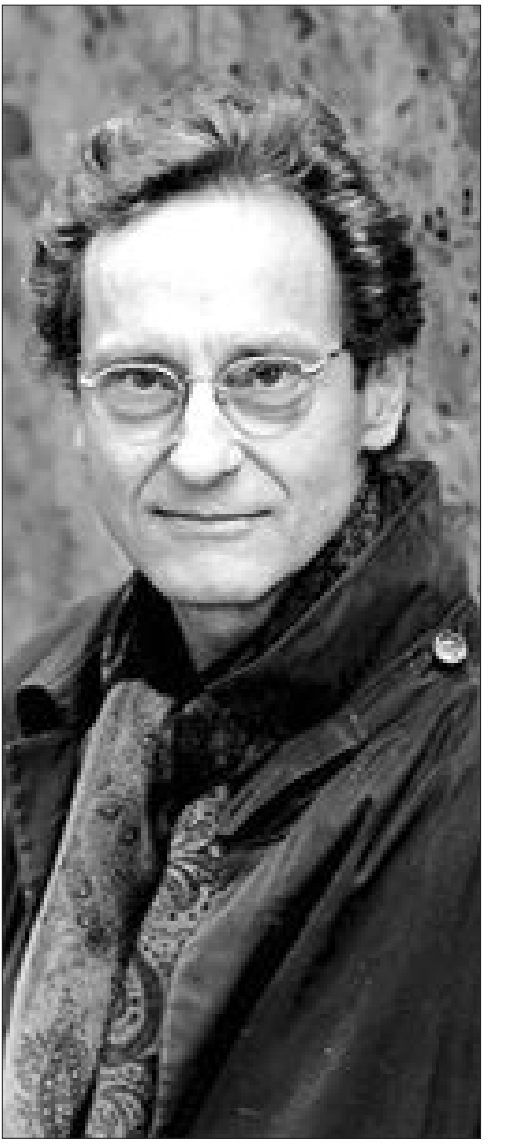
그 과정에서 페터는 전쟁통에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와 가족사에 관한 진실에 조금씩 접근하게 된다.

카를에 대한 페터의 추적 작업이 아버지의 정체 찾기와 포개지면서 '귀향'은 그 자체로 전후 독일을 배경으로 한 현대판 '오디세이아'로 거듭나고 소설적 재미는 배가된다.

나치 독일에 가담했다가 패전 후 신분 세탁을 거듭하며 출세가도를 달리던 생부와 페터의 만남은 말끝이 청산되지 못한 우리의 과거사 문제를 상기시킨다.

페터의 아버지는 이름을 바꾸고 미국으로 건너가 학자로 성공했고, 아들까지 버린 다음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이레·1만2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베른하르트 솔링크)

돈의 가치는 '지속 가능한 투자'

슬로머니

우디 타쉬 지음



벤처캐피털 투자자이자 기업가로 슬로머니 운동을 시작한 우디 타쉬가 바람직한 자본의 흐름을 꿈꾸며 쓴 '슬로머니'가 출간됐다.

'슬로 라이프', '슬로 푸드'에 이어 이제는 '슬로 머니'(Slow Money)에 관심을 갖자는 책으로 이미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슬로머니 운동의 목표와 진행과정을 담은 일종의 보고서라 할 수 있겠다.

'슬로머니'는 돈의 가치에 대한 각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투자되는 자본을 뜻한다.

저자는 "슬로머니는 기술제일주의·성장 극대화·대량 소비 등 현대 경제에 내재된 폭력성을 부르는 '패스트 머니'가 아니라 새로운 경제체제의 근간이 될 보양의 비옥도를 높이고, 중소 규모의 지역 식품업체·농장을 지원함으로써 로컬푸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유기농을 장려하는 데 투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세상을 구축하는 데 쓰여지는 자본이다"고 말한다.

한편에 슬로머니에 담긴 철학, 토양 비옥도와 유기농·로컬푸드 공동체의 중요성, 사회적 투자의 역사에서 슬로머니가 차지하는 위상, 슬로머니 운동의 상황, 슬로머니 운동을 체계화시키려는 사람들의 노력 등이 실렸다. (사해문집·1만4천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다양한 감정으로 쓴 사랑이야기

플발 위의 식사

전경린 지음



'염소를 모는 여자', '아무 곳에도 없는 남자'의 전경린이 장편 소설 '플발 위의 식사'를 펴냈다.

전작 '엄마와 집'에서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그렸던 전경린은 이번 신작에서 자신의 특기인 남편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왔다. 소설은 여주인공 누경의 현재와 과거를 통해 사랑의 다양한 감정을 풀어간다.

소설은 시작부터 이미 깨어질 것을 아지만 그 예고된 위험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여자 누경으로 부터 시작한다. 그녀를 바라보는 남자 기현, 그리고 누경의 일기장 속의 한 남자의 이야기로 얽히면서 소설은 '사랑'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 보인다.

기현은 한 술자리에서 우연히 '누경을 만나 끌리게 된다. 그러나 누경은 '기현'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한다.

아직 그녀의 생을 지배하는 서감주와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감주는 어머니의 육촌조카이며 그녀가 다니는 대학의 교수이자, 아내가 있는 사람. 결국 그와의 사랑은 깨져버리지만 그녀는 이 사랑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정명의 작가'로 불리는 전경린은 '아무곳에도 없는 남자'로 문학동네 소설상을, 단편 '천사는 여기 머문다'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했다. (문학동네·1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선비 화가의 삶과 작품세계

공재 윤두서 ...

박순 지음



'자화상'으로 많이 알려진 조선시대 화가 윤두서(1668~1715)의 삶을 다룬 책 '공재 윤두서-조선 후기 선비 그림의 선구자'가 나왔다.

박순(덕성여대 미술사학과 교수)씨가 쓴 '공재 윤두서'는 생애와 작품, 내면 세계를 면밀히 추적, 조선 시대 선비 그림의 개척자였던 윤두서의 면모를 밝힌 책이다.

책은 윤두서의 일생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삶의 내력에 따라 형성된 작품을 세심히 고찰했다.

저자는 윤두서가 직접 필사해 남긴 '기축(記拙)을 비롯한 유고집과 고화첩, 그와 관련된 사건과 일화를 기록한 문서와 사료 등을 면밀히 정리하고 분석해 그의 삶을 생생히 복원해 냈다.

해남 윤씨 집안의 종손으로 태어난 윤두서는 당쟁으로 인해 출세의 소망을 접고 서화와 학문에 몰입한 결과 인물화와 산수화 풍속화에서 회화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론을 제시했다.

책에서는 '자화상'을 비롯해 '경담묵무도', '채파도', '나물 캐는 여인' 등 그의 대표작을 자세히 설명과 함께 만날 수 있다.

둘째가 의욕적으로 펴내고 있는 '조선의 화가' 시리즈 두번째 권이다. 첫 권 초서 '허련' 편이 나왔고 조만간 '단원 김홍도'가 출간될 예정이다. (클베개·2만3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다산공인중개사
▶빌딩(임대용, 투자용)
▶토지 177평, 건물 740평
▶상가매매(첨단)
▶참고 및 공장용지

바다공인중개사
▶관선건물(투자,직영,임대)
▶대지 150평 건물 120평
▶직영시 월 수입
▶투자용 펜션 용지

최고급 전원주택매매
(최고급 건축자재 사용)
● 위치 ●
최순원 전대통령비서실부근

(주)국민법률경매
공인중개사: 강영희
0621364-8700
H.P. 010-4608-3700
지역/소지/대지/건물/매매/최저가